

20세기 한국예술 최고 대표작은?

한예중 예술연구소 전문가 60명 설문 6개 장르 최고작 선정

- 미술-김환기 '어디서...' 음악-윤이상 '예악'
- 영화-김기영 '하녀' 유현목 '오발탄'
- 연극-차범석 '산불' 무용-김매자 '춤본'
- 전통예술-김덕수 '사물놀이' 이상규 '대바람...'



연극 '산불'



김환기 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매자 '춤본'



영화 '하녀'

전문가들이 선정한 20세기 한국예술을 대표하는 고전은 무엇일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가 미술, 영화,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6개 장르별 예술 분야의 전문가 6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20세기 대표하는 한국예술 고전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미술 작품 1위에는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년)가 올랐고, 영화 분야에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년)와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1961년)이 공동 1위로 선정됐다.

또 음악 분야에서는 윤이상의 '예악'(1966년), 연극 분야에서는 차범석의 '산불'(1962년), 무용 분야에서는 김매자의 '춤본 I, II'(1987년, 1989년),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사물놀이팀(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사물놀이'(1978년)와 이상규 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1978년)가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술=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서구 미술 도구와 재료를 자기화하여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방법만으로도 '인류사의 기념비'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환백이 뉴욕에 거주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이 작품은 그가 사망한 1974년 이전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공동 2위에는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 신학철 '한국 근대사-총합', 이우환 '관계항', 이종섭 '흰소', 이쾌대 '군상' 등이 올랐다.

◇영화='하녀'는 '관습적인 한국영화 흐름 속에서 이례적인 표현주의 미학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발탄'은 한국전쟁 후 분단의 아픔과 피폐한 일상을 치열하게 재현한 한국영화 리얼리즘 텍스트의 상징으로 꼽혔다.

3위에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올랐다.

◇음악='예악'은 1966년 독일 도나우싱엔 음악제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윤이상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그의 대표작이다. 종교제례악을 뜻하는 '예악'은 서양악기를 통해 우리나라 음악과 국악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국악과 서양음악을 결합한 작품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강준일 '마담', 김성태 '코리안 카프리지오(한국기상곡)', 안익태 '한국환상곡'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연극=차범석의 '산불'은 '6·25 전쟁의 실상을 그린 한국 사실주의 희곡의 최고봉'으로 대변된다. 이밖에 오영진 '명진사대 경사', 오영진 '살아있는 이증생각하', 오태석 '자전거', 오태석 '태', 유지진 '토막', 이강백 '봄날', 이운택 '문제적 인간 연산',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어' 등 8개 작품이 공동 2위였다.

◇무용=김매자가 1980년대 후반 발표한 '춤본 I, II'는 1970년대까지 주를 이룬 신무용에서 벗어나 우리 춤을 현대화하는데 초석을 마련했으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공동 2위는 배정혜 '타고 남은 재', 배정혜 '우리도시', 송범 '도미부인'이다.

◇전통예술=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국적 정체성과 살아있는 전통을 보여준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 일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 1위 '대바람 소리'는 한국 대표 대금 협주곡으로 아직까지 이 음악을 능가하는 대금 음악이 없다는 평가다. 그밖에 김영동의 '매곡', 황병기의 '집향무'는 공동 3위에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사생회 30주년 '함께 돌아보다'展

내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사생회(회장 이신자)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9일까지 '함께 돌아보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로부터 중진까지 회원 49명이 월출산, 추월산, 제주도 등 현장감이 살아있는 작품 49점을 출품했다.

복숭아꽃을 배경으로 봄을 맞은 여심이 잘 드러난 조규일 화백의 '복숭아꽃 소녀'나 파도치는 해변, 해안에 핀 꽃 등이 생동감있게 묘사된 황기록 화백의 '일출봉 해변' 등의 작품은 산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우진 '설경', 서봉환 '봄의 향연', 황수무 '청량산의 추경', 문명호 '환희', 김종욱 '靑丘山' 등 사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 1984년 김주성 초대회장을 필두로 조규일, 이우진, 황기록 등 회원 14명으로 첫발을 댄 광주사생회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6년 창립전을 개최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전을 열며 1년간의 성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사생회원들은 한달에 한번 광주·전남지역, 1년에 두차례 전국을 대상으로 스케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목도모와 자연 경관을 화폭에 담고 있다. 또 매년 6대 광역시 사생회와 교류전



조규일 작 '복숭아꽃 소녀'

을 개최하며 남도의 풍광을 알리고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신자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정열적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가꾸고 광주 화단의 모범이 되는 미술단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우수종씨 대상

16~21일 비엔날레전시관서 입상작품 전시

제27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대상(상금 500만원)에 오우종(32·서울) 작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200만원)에는 심다이(여·22·전북) 작가가 뽑혔고 우수상(각 100만원)에는 김혜리(여·27·광주) 외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후원특별상은 정현경(여·33·광주) 등 작가 13명이 수상했다.

광주시가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된 한국화대전 심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506점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보였다.

100호 이상의 대가 작품이 대거 출품됐으며 젊고 역량 있는 대학(원)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우종 작가는 이번 대회에 설경 속 어우러진 소나무 등을 표현한 한국화 '겨울나무'를 출품했다. 심사위원들은 "오 작가는 섬세하면서도 관찰을 통한 묘사가 뛰어난 개성이 돋보인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화가 좋아서 지금까지 붓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작업을 해온 결과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상으로 알고 열심히 전통 수묵화를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입상작품 전시회는 오는 16일부터 21



오우종 작 '겨울나무'

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추천·초대 작가 작품과 함께 개최되며, 시상식은 16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